

이혼한 딸과 부모의 동거 경험

- 일방적 의존과 상호적 의존의 경계에서 -

Co-residence of Divorced Daughters and Their Parents:
Borderline between Overdependence and Mutual Dependence성미애(Miai Sung)¹, 최세은(Saeun Choi)^{2*}, 최연실(Younshil Choi)³, 이재림(Jaerim Lee)⁴¹Department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²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³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⁴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and 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ived experiences of adult daughters who returned to their parents's home after divorce. We focused on the meanings of co-residence and the mechanism of their relationships. The participants of our in-depth interviews were five pairs of divorced daughters (35-40 years) and their parents (61-69 years; three mothers and two fathers). Our thematic analysis found that the divorce of the daughter made herself feel guilty and her parents feel sorry. Divorce was an inevitable decision to the daughters and the parents had no choice but to accept her decision. However, the parents in general did not want to disclose their daughters' divorce to others.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was pleasant and was more advantageous than disadvantageous for daughters who returned to their parents after a hard marriage. The daughters' relationships with their fathers tended to be superficial whereas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were very close and ambivalent. Some parents stated that living with a divorced daughter was different from living with the same daughter before she got married. These parents were worried about the divorced daughter's uncertain later life and, therefore, tried to support her in various ways. Most parents regarded the co-resident daughter as a child who was not an adult yet. At the same time, some parents regarded the daughter as a "big girl" whom they wanted to depend on.

▲주제어(Key words): 이혼한 딸(divorced daughter), 부모-자녀 관계(parent-child relations), 세대 간 동거(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부메랑족(boomerang kids), 연결된 생애(linked lives)

• 본 연구는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NRF-2015S1A5A2A03048460).

• 본 연구는 2017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Saeun Choi.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yeon, Cheongwon-gin, Chungbuk. 363-791. Korea.
Tel: +82-43-230-3734, E-mail: saeeun@knue.ac.kr

I. 서론

본 연구는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딸과 그의 부모의 목소리를 통해, 딸의 이혼과 이혼 후 딸과 부모의 동거 경험, 그리고 이혼한 딸과 부모 간의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발달과업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개별 개체로 성장해 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을 전제로 의미 있는 타자들과 다양한 상호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인해 이러한 기본적인 발달과정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동거하면서 삶의 전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켄거루족의 삶과 이들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성인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부모 돌봄이나 부양 행동을 하는 등 동거하는 부모-성인자녀 간 상호작용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Y. Choi, 2014; Y. Lee, S. Kim, Y. Lee, & H. Choi, 2011; Y. Lee, Y. Lee, H. Choi, & H. Lee, 2011; M. Sung, Y. Choi, S. Choi, & J. Lee, 2017; M. Sung, J. Lee, Y. Choi, & S. Choi, 2017). 또한 성인자녀와 부모가 동거하는 주된 이유는 자녀의 비혼 상태 때문이었으며, 두 세대 간 관계만족도는 높거나 적어도 비혼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나 삶의 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혼 성인자녀와의 동거를 당연시 하며, 부모-성인자녀 간 분화 수준이 낮은 한국 가족의 독특성이 켄거루족 가족의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해외 선행연구들(A. Gonzales, 2007; E. Kins, W. Beyers, B. Soenens, & M. Vansteenkiste, 2009; M. Messineo & R. Wojtkiewicz, 2004; K. Newman & S. Aptekar, 2006; J. Suitor & K. Pillemer, 1988)을 보면,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부모의 행복과 생활만족 수준을 낮추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밝혀진 연구결과와, 앞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게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오히려 부모의 삶에 활력이 되는 등 부모의 행복과 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대조적인 연구결과에는 가족주의를 지지하는 수준의 차이나 성인자녀의 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자율적 선택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성인자녀 동거에 관한 선행연구의 지

평을 확대하면서도 성인자녀의 이혼이라는 생애 사건이 그 후의 삶이나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는 딸과 그들의 부모의 목소리를 통해 이혼과 동거, 그리고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혼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주로 이혼 제도에 대한 연구들(J. Cheong, 2013; E. Cho, 2007; J. Sung & S. Yang, 2006), 이혼 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들(H. Joo, 2016; J. Moon & M. Kim, 2017; C. Noh, K. Ham, M. Kim, H. Kim, & S. Cheon, 2014), 이혼 당사자의 이혼 후 적응에 대한 연구들(C. Lim, 2014; S. Ok & M. Sung, 2004; H. Park & G. Han, 2006; S. Son, 2013),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자녀의 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들(S. Kim, 2014; K. Kim & K. Ha, 2012; C. Noh et al., 2014)이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최근에 이루어진 이혼에 대한 연구들은 이혼 자체를 가족이나 사회 문제로 보고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생애 사건임을 전제하고서 이혼 이후의 적응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이혼율과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전제되어 있다. 최근의 이혼율을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조이혼율이 2.0을 넘어 2003년에는 3.4까지 올랐고 2016년에도 2.1 정도에 이르러 20 여 년 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7a). 또한 이혼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여,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던 비율이 2008년에는 58.6%였으나 2016년에는 39.5%로 19.1%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7b).

그러나 이혼율이나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이혼 당사자들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 때문에 이혼 후 적응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었다(S. Kim, 2014; C. Lim, 2014; C. Noh et al., 2014). 특히 동일한 이혼이라는 생애 사건을 경험한 경우에도 젠더 차별이 있어, 남성보다 여성의 이혼을 여성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에 나타나는 생애 사건으로 간주하는 등 가부장적 인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본 연구에서도 이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생애과정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삶은 한 데 묶여 있어서 한 세대가 경험하는 생애 사건은 불가분하게 다른 세대의 삶과 연결된다고 보며, 이를 연결된 삶(linked lives)으로 표현하였다(G. Elder, 1985). 이런 배경에서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찍이 관심을 가지고 국내외 연구들(P. Amato & A. Booth, 1996; K. Bulcroft & R. Bulcroft, 1991; H. Chung, 1993; T. Cooney, 1994; S. Ju, 2008; H. Lee,

2004; Y. Nam, 2010; D. Umberson, 1992; S. Yi, O. Lee, & J. Kim, 2005)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성인자녀의 이혼이 부모와의 관계, 특히 성인자녀와 부모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두고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사실 이혼 후 부모와의 동거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결혼을 통해 독립한 체계의 구성원이 이전의 체계로 다시 되돌아오는 문제가 아니다. 이혼한 자녀와 부모의 재동거는 전체 체계의 상호작용 시스템과 역동성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두 세대 모두의 생애 사건이 된다. 특히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고, 자녀의 실패는 곧 부모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미분화된 부모-자녀 관계를 갖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S. Lee, H. Shin, & E. Kim, 2012; Y. Park & U. Kim, 2004) 하에서는 자녀의 이혼을 인생에서의 '실패'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인식은 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성인자녀와의 동거는 성인자녀의 독립의 문제와 함께, 체계 내 관계 역동성의 변화까지 직면하게 되면서 일상적으로 말하는 쟁거루족의 삶과는 또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딸과 그들의 부모의 시각과 목소리를 통해 딸의 이혼 후 동거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볼 때, 부모-성인자녀 동거 연구와 이혼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부모와 성인자녀 간 분리 수준이 낮은 한국 가족에서 부모와 성인자녀 간 동거 경험 뿐만 아니라 내면적 상호작용 측면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시사점은 궁극적으로 세대 간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자녀의 결혼지위 변화와 부모-성인자녀 관계

성인자녀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원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 있다.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관계, 즉 배우자와의 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므로, 원가족의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 제도는 두 성인의 배타적인 애정적 결속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관계는 대부분은 약화된다(M. Barrett & M. McIntosh, 2015). 이러한 속성 때문에 결혼을 다른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유대를 최소화하고 현재의 가족에만 집중하게 하는 '욕심 많은 제도(greedy institution)'라고도 부른다(L. Coser, 1974).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의 결혼은 부모와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생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 결과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데, N. Sarkisian and N. Gerstel(2008)은 '결혼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제목 하에 자녀의 결혼이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지 여부를 연구하였다. 저자들은 미국의 전국 규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결혼한 자녀들이 결혼한 적이 없거나 이혼한 자녀들에 비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적고, 교류하는 빈도도 더 낮으며, 정서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덜 주고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으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시간 부족, 소득 변화, 건강 변화 등을 고려하고도 여전히 차이가 드러나, 자녀의 결혼은 그 자체로 부모와의 결속을 약화시킨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혼상태가 종결된다면 부모와의 결속은 다시 회복될 것인가? 자녀의 결혼이 부모와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사건이 된다면, 그 반대가 되는 자녀의 이혼은 부모와의 결속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지되었는데, 부모와 성인자녀간 유대를 살펴본 연구들(F. Bucx, F. Van Wel, T. Knijn, & L. Hagendoorn, 2008; N. Sarkisian, 2006; Sarkisian & Gerstel, 2008; T. Swartz, 2009)에 따르면, 이혼한 성인자녀가 결혼한 자녀에 비해 부모를 더 자주 만나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으며, 연락도 자주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결혼이라는 '욕심 많은 제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자를 중심으로 관계 맺기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가족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유대를 회복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이혼이라는 생애 사건은 이혼한 자녀에게 제약이 되었던 시간이나 에너지 자원을 회복하게 하면서 원가족과의 결속과 유대를 이끄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조건적합이론(contingency theory)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와의 결속을 도모한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녀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수록 부모는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게 되므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안정적인 자녀보다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자녀에게 정서적, 경제적,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게 된다(K. Fingerman, L. Miller, K. Birditt, & S. Zarit, 2009)는 것이다. 이처럼 성인 자녀가 이혼을 한 경

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나 부모 쌍방이 모두 더 많은 세대간 지원과 결속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이혼은 부모와의 관계 전반을 고려해 보았을 때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보인다고는 할 수 없다. 이혼한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부모와의 교류나 동거, 기능적인 지원 교환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들이 있으나(F. Bucx et al., 2008; N. Sarkisian, 2006; Sarkisain & Gerstel, 2008; T. Swartz, 2009), 이러한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녀의 성별이나 결속 차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일관된 상호작용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N. Sarkisain and N. Gerstel(2008)의 연구에서는 이혼한 딸은 결혼한 딸에 비해 부모와의 애정적인 결속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아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자녀의 이혼이라는 생애 사건은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이혼과 세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녀의 이혼과 부모의 삶, 부모-성인자녀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본 연구는 생애과정관점의 연결된 삶(linked lives)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생애과정관점의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인 연결된 삶은 부모와 자녀의 삶이 묶여 있어서 한 세대가 경험하는 생애 사건이 다른 세대의 삶과 항상 연결된다고 보는 개념이다(G. Elder, 1985). 한 세대에서 결혼 상태나 고용상태, 건강상태의 변화가 있다면 다른 세대의 삶에도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나 적응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P. Amato & A. Booth, 1996; K. Bulcroft & R. Bulcroft, 1991; H. Chung, 1993; T. Cooney, 1994; S. Ju, 2008; H. Lee, 2004; Y. Nam, 2010; D. Umberson, 1992; S. Yi, O. Lee, & J. Kim, 2005)은 많다. 그러나 성인 자녀의 이혼에 초점을 맞추어 성인 자녀의 이혼 후 부모-성인자녀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미국의 전국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의 이혼 역시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긴장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일부 있을 뿐이며(G. Kaufman & P. Uhlenberg, 1998), 국내에서는 성인 자녀의 이혼과 부모와의 관계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인구 고령화 및 이혼건수의 증가와 함께 자녀의 이혼을 경험하는 부모의 수도 늘어남에 주목한다면, 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이혼이라는 생애 사건과 관련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특히 한

국 사회에서는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고, 자녀의 실패는 곧 부모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맥락이 존재하므로(S. Lee et al., 2012; Y. Park & U. Kim, 2004), 자녀의 이혼을 자녀의 인생에서의 '실패'로 간주하고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한국 사회에서의 자녀의 이혼과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

부모-성인자녀의 동거는 생애과정관점과 세대간 결속이론에서 주된 관심을 기울여 온 연구 영역이다(W. Aquilino, 1990; V. Bengtson & R. Roberts, 1991; V. Bengtson & S. Schrader, 1982; L. Lawton, M. Silverstein, & V. Bengtson, 1994; L. White & S. Rogers, 1997). 그런데 최근 1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부모-성인 자녀의 동거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L. Bell, G. Burtless, J. Gornick, & T. Smeeding, 2007; B. Isengard & M. Szydlik, 2012; Y. Kang, 2016; Y. Lee et al., 2011; S. Ma & F. Wen, 2016; K. Payne, 2012; J. Raymo & H. Ono, 2007; S. Ruggles & M. Heggeness, 2008; S. Sassler, D. Ciambrone, & G. Benway, 2008; I. Seiffge-Krenke, 2006; A. Smits, R. van Gaalen, & C. Mulder, 2010; M. Steketee, 2011; M. Turcotte, 2006; R. Ward & G. Spitze, 2007).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교육기간의 연장 과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18세에서 34세 사이 성인 자녀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어려운 발달과업이 되었음을 미국, 캐나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L. Bell et al., 2007). 2000년대 후반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청년층은 '제일 늦게 고용되고 제일 먼저 해고되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 되었다(Z. Qian, 2012). 경제위기 기간 동안 미국 청년들의 거주 형태를 살펴본 한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동거, 혼자나 친구와 같이 사는 경우와 달리 부모와 동거하는 18-24세의 성인자녀가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던 2007-2010년 사이에 5.2% 증가하였고, 25-34세 자녀에게서는 1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L. Mykyta & S. Macartney 2012). 또한 이 시기에 10명 중 한명의 청년기 자녀는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 같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Pew Research Center, 2009). 이처럼 성인자녀의 독립이 점차 어려워져서 인간발달 단계에서도 '성인 전이기(emerging adulthood)'라는 새로운 발달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었다(J. Arnett, 2006). 한국 사

회에서도 교육기간의 연장과 노동시장에의 진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S. Ahn, H. Cuervo, & J. Wyn, 2010). 이처럼 성인자녀와 부모는 각 세대의 필요성과 요구에 따라 동거를 결정하지만 노부모 보다는 성인이 된 자녀들의 경제적 요구와 필요성으로 인해 촉발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 Descartes, 2006; B. Isengard & M. Szydlik, 2012; J. Kahn, F. Goldscheider, & J. Garcia-Mangano, 2013; A. Smits et al., 2010; S. Vassallo, D. Smart, & R. Price-Robertson, 2009).

부모와 성인자녀 간 동거가 갖는 두 세대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축적된 상태는 아니다. 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는 대부분 성인자녀의 필요에 의해 부모 소유의 집에서 동거를 하는 것이므로 성인자녀가 주된 수혜자이고 부모에게는 부정적일 것이라 예상했지만(J. Suitor & K. Pillmer, 1988; D. Umberson & W. Gove, 1989), 오히려 부모도 동거하는 자녀와 갈등관계에 있기 보다는 여가 시간을 공유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녀 관계에서 이러한 점이 두드러졌다(W. Aquilino & K. Supple, 1991). 더욱이 동거하는 성인자녀가 직업이나 소득, 결혼 지위, 부모됨 등에 있어서 안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부모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 Aquilino & K. Supple, 1991; M. Silverstein, Z. Cong, & S. Li, 2006; M. Sung et al., 2017). 또한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홀로된 경우, 자녀와의 동거는 부모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J. Raymo & Y. Zhou, 2012; M. Sung et al., 2017; M. van der Pers, C. Mulder, & N. Stevenrind, 2015). 나아가 부모로부터 늦게 독립한 성인자녀들이 부모와 깊은 유대를 가지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T. Leopold, 2012)도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는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부모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생애주기 단계, 이전의 관계 특성, 문화적 맥락 등의 요인들에 따라 다양한 관계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동거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무조건적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성인자녀와 부모 간 지원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에게 더 많이 주기도 한다는 연구결과(L. White & S. Rogers, 1997)가 있다. 더욱이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자녀를 연령 집단별로 살펴본 연구(M. Steketee, 2011)에 따르면, 연령이 높은 성인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주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18-25세의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N. White, 2002)에 따르면, 성인자녀에게 부모와 함께 사는 집이란 '나의 집(home)'이자 '사는 장소(house)'로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공간에 대한 결정권과 제한된 가사 분담 등의 의미에 따라 부모-성인 자녀 간 상호작용에서는 많은 변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성인자녀 간 동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거와 관련된 동기나 효과를 단순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M. Steketee, 2011). 따라서 부모와 성인자녀가 동거하는 상황에서의 두 세대 간 상호작용이나 역동성은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부모와 따로 산 경험 없이 계속 부모와 살아왔던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다가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사는 자녀와의 동거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S. South & L. Lei, 2015). 성인이 되어 진학이나 군대, 연인과의 동거나 결혼을 계기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였다가 돌아온 자녀를 '부메랑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K. Newman, 2013; M. Turcotte, 2006). 그리고 성인자녀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나 빈도에 따라 부모의 결혼만족도(B. Mitchell & E. Gee, 1996)나 부모-성인자녀 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W. Aquilino, 1990)가 있다. 반면에, 자녀가 돌아와 같이 살더라도 자율성이 보장되고 세대 간에 상호 지원하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부모의 생활만족도는 높다는 상반된 결과(B. Mitchell, 1998)도 존재한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는 질적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독립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의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어머니를 심층 면접한 결과(Y. Schwarts & L. Ayalon, 2015)에 따르면, 어머니의 동거 경험과 자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복잡적이고 양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메랑족과 함께 사는 어머니들은 크게 세 가지 집단으로 유형화 되었는데, 첫 번째는 갈 곳이 없는 어려움에 처한 자녀를 도와야 하는 '구조자 형'으로, 어머니가 가정생활과 관련된 모든 규칙을 설정하며, 결정권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 자녀를 돕는 것에 만족하는 유형이었다. 두 번째는 '혼란스러운 형'으로, 독립적인 성인이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되어 돌아온 성인 자녀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지며, 모호한 경계 속에서 혼란스러워 하면서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유형이었다. 세 번째는 '관여하는 형'으로, 다시 돌아온 성인 자녀의 일상생활이나 삶에서의 중요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는데, '구조자 형'과는 달리 자신의 관여 행동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기 보다는 물리적, 정서적으로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부모와 성인자녀가 동거하는 썬더족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시작되었으며(Y. Kang, 2016; Y. Lee, et al., 2011; M. Sung et al., 2017), 성인 자녀가 독립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혼한 딸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와 함께 사는 이혼 딸-부모의 관계를 자녀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에서 이혼 후 동거 생활과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모집 및 특성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이혼한 딸과 이들과 함께 사는 아버지나 어머니이다. 부모와 같이 사는 이혼한 딸의 입장과 이혼한 딸과 같이 사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동거 경험이나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혼한 딸과 부모 중 한 사람을 쌍으로 모집하였다. 이혼한 딸은 만 35세 이상으로, 자료수집 당시 이혼한 상태이며, 아버지나 어머니는 모두 만 75세 미만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혼한 딸의 연령을 만 3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혼한 자녀가 결혼 적령기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을 인식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였고 하여도 결혼적령기를 넘기지 않은 연령대에서는 이혼 당사자의 이혼 후 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인식이나 부모가 딸의 이혼에 대해 갖는 인식이 다른 연령대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의 초혼 연령인 30.2세(Statistics Korea, 2017a)를 고려해서 결혼적령기가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한, 만 35세 이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한정하였다.

부모의 연령을 만 75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혼한 딸과 부모의 상호의존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모가 적극적인 의미의 부양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연령에

이르기 이전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노년 시기를 구분해서 살펴본 연구(K. Yun & M. Sung, 2016)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부터는 노년기의 삶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 75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년기의 삶의 특성 보다는 오히려 중년기의 삶의 특성과 비슷하게 나타나 만 75세를 기준으로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0대 중반부터는 신체적으로 고령화되면서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관계 양상이 '부양'과 관련해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의 연령을 만 75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모집하였다.

거주 지역을 서울 및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것은 거주 지역에 따라 가치관이나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부정적 시선을 보이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생애 사건으로 인식하는 등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혼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이혼한 자녀가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는 삶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주 지역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로 한정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 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리서치 회사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집을 공지하는 방법과 리서치회사에서 보유한 패널 중에서 본 연구의 조건에 해당하는 패널에게 모집 공지를 발송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모집 조건을 제시할 때 이혼한 딸과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사회경제적 지위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 연구 참여자 선정 조건에 부합하는지 전화를 통해 직접 인정한 후,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면접 일정을 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집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이혼한 딸 5명과 이혼한 딸과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 3명, 아버지 2명으로 총 10명이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수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머니 3명과 아버지 2명의 경우 연구 자료로 부족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충분히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도록 시간의 제약을 주지 않았다. 또한 한 연구자가 이혼한 딸과 어머니나 아버지를 쌍으로 심층면접될 수 있도록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심층면접 내용은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쌍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유익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심층면접 때 유의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전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s' Social-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Sex	Educational level	Job	Marital status	No. of children (Sibling)	Housing type	Other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Years of marriage before divorce	Source of living expenses
Parent 1	69	F	Vocational high school	Homemaker	married	1 Son 1 Dau.	Owned Apt.	Father	3 years	Parents
Child 1	39	F	4-year university	Accounting clerk	divorced					
Parent 2	61	F	High school	Landlord	divorced	1 Dau.	Rented Apt.	None	5-6 years	Mother
Child 2	35	F	2-year college	Office worker	divorced					
Parent 3	65	F	4-year university	Homemaker	widowed	1 Son 1 Dau.	Owned Apt.	None	3 years	Mother
Child 3	40	F	Master's degree	Part-time cashier	divorced					
Parent 4	62	M	Middle school	Apartment manager	married	2 Dau.	Rented Apt.	Mother, Grandson	1 year	Parents & Dau.
Child 4	35	F	4-year university	Office worker	divorced					
Parent 5	65	M	4-year university	Unemployed	married	1 Son 3 Dau.	Owned House	Mother, Unmar. son, Granddau.	7 years	Dau.
Child 5	40	F	High school	Office worker	divorced					

면접 당시 이혼한 딸 참여자의 연령은 만 35세-40세로, 평균 37.8세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연령은 만 61-69세 사이였으며, 평균 65세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의 연령은 만 62-65세 사이였으며, 평균 63.5세였다. 딸의 교육수준은 고졸 1명, 전문대졸 1명, 대졸이 2명, 대학원졸이 1명이었다. 참여자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 2명과 대졸 1명이었으며, 참여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중졸인 경우가 1명, 대졸인 경우가 1명으로 차이가 컸다. 이혼한 딸 5명 중 4명은 회사에서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파트타임인 경우가 1명 있었다. 연구 참여자 어머니 중 2명은 전업주부였으며, 나머지 1명은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경우가 1명,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는 경우가 1명이었다. 참여한 부모-자녀 쌍 중에서 한 쌍만이 이혼한 딸이 유일한 자녀였고, 나머지 경우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함께 사는 가족 구성을 보면, 이혼한 딸과 사별 또는 이혼한 어머니가 단 둘이 사는 경우가 2사례, 부모와 딸 셋이서 사는 경우가 1사례, 부모와 딸과 딸의 손녀 3세대가 사는 경우가 1사례가 있었으며, 이혼한 딸과 손녀, 그리고 미혼의 남동생과 사는 3세대 5식구가 사는 경우가 1사례 있는 등 다양했다. 연구 참여자 딸의 이혼 전 결혼생활 지속기간을 보면, 1년인 경우가 1명, 3년인 경우가 2명, 5년 이상인 경우가 2명이었다. 현재 생활비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은 딸인 경우가 1사례(사례 5), 부모와 딸이 함께

책임지는 경우가 1사례(사례 4), 부모가 책임지는 경우가 3사례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이혼한 딸과 부모가 함께 살면서 만나는 일상의 경험세계와 관계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지침을 활용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혼한 딸과 함께 사는 부모 중의 한 사람을 자녀-부모 쌍으로 함께 모집한 후 개별 참여자의 일정에 맞추어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같이 살고 있는 이혼한 딸과 부모들이 동거 경험과 관계의 특성을 서로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부모 쌍을 동시에 면접할 경우 이러한 경험과 생각 전반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자녀와 부모를 각자 따로 만나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면접 내용이 연구주제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연한 면접지침을 준비하였다. 면접지침에 포함된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 특성에 관한 질문과 동거의 배경, 동거에 대한 인식,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지원의 양상, 향후 동거 및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전망 등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은 2017년 1월 19일에서 2월 8일 사이에 이루어

어졌다.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연구자의 소속과 연락처,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참여 의사 철회가 가능함을 공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면접 내용에 대한 녹음의 허락을 받은 후 면접을 시작하였다. 면접 시간은 연구 참여자가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두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를 할 때 부담을 갖지 않도록 준비한 면접지침을 활용하여 질문을 하되, 질문의 순서도 연구 참여자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조정하였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이야기 흐름에 따라 질문을 이어갔으며, 추가질문(probing)을 충분히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한 의도와 의미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심층면접은 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심층면접은 연구자들의 대학교 연구실이나 교동이 편리한 회의용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면접 완료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면접은 연구자들이 분담하여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면접지침을 수정하고 연구 노트를 공유하였다. 면접내용은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치밀하게 전사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자 책임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설명문을 활용하여 연구에 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심층면담 녹음과 전사한 내용이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미리 고지하였고 참여자의 이름도 익명으로 표기된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연구에 함께 참여하는 부모나 자녀에게도 인터뷰의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린 후에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3. 자료분석

심층면접한 자료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제분석법은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에 주목하는 방식이다(V. Braun & V. Clarke, 2006). 특정한 이론에 근거하기 보다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에게서 반복적으로 떠오른 중요한 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V. Braun and V. Clarke(2006)가 정리한 6단계 주제분석법에 맞추어, 이혼해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딸과 아버지나 어머니의 조망

을 통해 자신(딸)의 이혼에 대한 인식,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서술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심층면접 자료를 숙지하면서 각 사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읽는 작업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혼 후 동거한 딸과 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쌍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별 면접 자료에 대한 이해 후 쌍별로 따로 면접 자료를 읽었다. 이 과정에서는 전사본뿐만 아니라 심층면접 때 작성한 연구노트도 참고하였다.

2단계에서는 코딩을 실시하였다. 코딩 역시 개별 사례로 코딩한 뒤 이혼 후 동거한 딸과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쌍별로 다시 코딩하였다. 코딩은 이후 주제를 도출할 때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연구자 모두가 개별적으로 코딩하였다. 연구자들의 개별 코딩 이후 모든 연구자가 만나서 전체적으로 코딩 내용을 정리하고 확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 사이에 크게 이견을 보인 내용은 없었다.

3단계에서는 코딩결과를 토대로 의미 있는 중심 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때 도출된 주제는 '이혼이 죄스러운 딸과 딸의 이혼이 안타까운 부모',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딸과 딸의 이혼을 수용하는 부모',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혼 사실', '힘든 결혼생활 이후 자연스러운 동거와 결혼 전과는 다른 약간은 불편한 동거',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동거', '걱정되는 이혼한 딸의 노후와 부모의 지원', '성인이기 보다 여전히 아이인 딸과 의지가 되는 성인 딸' 등이었다. 그리고 이혼한 딸과 아버지나 어머니 쌍별로 독특하게 도출된 주제는 '피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와 밀착과 애증이 함께 하는 어머니와의 관계' 등이었다.

4단계에서는 도출된 중심 주제들이 체계적으로 잘 연결되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도출된 중심 주제가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5단계에서는 연결되는 중심 주제들의 범주를 구성하여 명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딸과 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삶에서 의미 있게 도출된 범주는 '이혼'과 '동거', 그리고 '관계'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거하는 딸의 이혼에 대한 인식'과 '이혼한 딸과 부모의 동거 경험', 그리고 '이혼한 후 동거하고 있는 딸과 부모의 관계 경험'이라는 3가지 범주를 통합해서 기술하는 서술 작업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한 주제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 Emergent Themes

Major themes	Sub-themes
Perceptions on the daughter's divo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ughters feeling guilty vs. Parents feeling sorry • Daughters deciding to divorce inevitably vs. Parents inevitably accepting the daughter's decision but wanting not to disclose
Meanings of living toge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easant co-residence with parents after a hard marriage vs. somewhat uncomfortable compared to the previous co-residence before marriage • More advantages than disadvantages • Worried about the divorced daughter's uncertain later life and providing parental support
Mechanism of the divorced daughter-parent relationsh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ill a child than an adult vs. Reliable "big girl" • Superficial relationships with fathers vs. Enmeshed and ambivalent relationships with mothers

자료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4인의 연구자들이 대면회의나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코딩, 주제 도출, 주제명 선정 및 정교화, 연구결과의 해석 등의 전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가족학 전공자 중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충분히 훈련받은 박사과정 연구원 1인을 통해서 동료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는 연구자들이 과잉 해석한 부분이나 놓친 부분 등에 대해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심 주제 범주를 확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동거하는 딸의 이혼에 대한 인식

1) 이혼이 죄송스러운 딸과 딸의 이혼이 안타까운 부모

사회적으로는 이혼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행복한 삶을 위한 차선책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으나, 이혼한 당사자인 연구 참여자들은 “저는 실패한 케이스여서” (딸 1) 라는 진술처럼, 자신의 이혼을 인생의 ‘실패’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혼한 딸을 둔 아버지나 어머니 참여자도 딸의 이혼을 “처음에는 정말 이건 충격적인 사고였죠. 솔직히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았죠.” (어머니 1) 라는 진술에서 나타난 것처럼, 딸의 이혼을 인생의 ‘충격적인 사고’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딸의 이혼은 딸에게나 부모에게나 딸 개인의 생애 사건이 아니라 가족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혼한 딸은 자신의 이혼 사실을 ‘(부모가 자신을) 잔하게 보게 만드는’ 생애 사건 또는 부모에게 ‘죄송스러운’ 생애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부모 역시 딸의 이혼 사실을 ‘안타까운’ 생애 사건, ‘(나의 잘못으로 인해 딸에게 생긴) 죄의식이 드는’ 생애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좀 안되게 생각할거 같아요...
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나 할까? 그랬을 거 같네요 (중략) 이렇게 (이혼을)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딸 3)

지 남편 있고, 가정 있으면 신경을 안 쓰는데...
저렇게 혼자 되가지고 오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이혼해서) 저렇게 와서 있는 게 다 내 죄 같고, 내가 뭔가 잘 못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제일 죄의식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 1)

특히 어머니도 이혼한 경우에는(사례 2) 딸의 이혼 사실뿐만 아니라 ‘엄마 같은 전철을 또 밟나 싶어서’라는 진술처럼, 이혼이 ‘대물림’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례보다 딸의 이혼을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죠’라고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다. 딸 역시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사실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다른 연구 참여자 보다 더 강했다.

당시에는 저희 외할머니랑 또 사셨어요, 엄마도. 엄마가 그래서 이거 (이혼을) 대물리는 거 같다고 막 되게 많이 좀 마음 아파하시고 했거든요. 제 이런 상황 때문에 심리적으로 뭐 죄송하죠 (중략) “아이고 우리 딸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항상 그렇게 하셨던 그게 있는데, 그 기대에 제가 부응하지 못한 게 많이 죄송스럽다는 마음이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땡땡거리면서 살지 못할지라도. 같이 서로 마음 맞아서 잘, 같이 이끌고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엄마 입에서 “이혼이 대물림되었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 한 게 죄송스럽죠. (딸 2)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는 동일했으나 딸의 이혼에 대해 취하는 입장에는 차이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달리 이혼한 딸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혼한 딸을 둔 어머니는 딸의 이혼을 당사자인 딸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게 가하는 고통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딸의 이혼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거나 여전히 '털지 못하는 충격과 아픔'으로 인식하면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렇게 와서 있는 게 다 내 죄 같고 내가 뭔가 잘 못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제일 죄의식이 드는 거예요 (중략) 우리 딸은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이런 고통이. 나한테도 이렇게 닥치니까 못 견디겠다고. (어머니 1)

'너희들은 절대 앞으로 나중에 너희 대대손손이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털 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을 좋게 봐주려고 그래도 내가 털 지를 못하겠어. 내 마음이 편하려면 내가 털어 내야 하는데 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내가 너무 아픔이 커가지고 (중략) 너무 안타깝고 너무 내가 보면은 너무 잔하고 안쓰럽고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저렇게 됐는가 싶으면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 3)

특히 사례 3의 어머니와 딸의 경우에는 다른 사례에서 보이는 친밀하고 애뜻한 모녀관계와는 달리, 어머니에 대한 딸의 원망이 더 큰 상황에서 사례 3 딸은 어머니가 본인의 결혼 결정에 과도하게 관여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례 3 딸은 자신이 이혼한 것도 어머니의 책임으로 보고, 이혼한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투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례 3의 어머니는 딸이 이혼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는 딸 앞에서 죄인이 되어 버리는 모녀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엄마가 저 남자하고 결혼을 빨리 하라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또 그런 징조를

또 한 번씩 내요. (중략) 옛날 말 한마디만 하면 엄마를 아주 반 잡아먹죠. 그래서 엄마는 항상 죄인이야. 항상 결혼도 엄마가 하라 그래서 이렇게 됐다. 무엇이던지 안 되면 엄마 탓만 해. 근데 보통 아이들 같으면 안 그렇지. 보통아이들 같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혼했겠어요? 조금 힘든 것도 다 참지. (어머니 3)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보다 이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는, 딸의 이혼을 자신의 문제로 동일시하는 어머니와는 달리, 제3자적 관점에서 '이혼이야 지가 이혼한다고 하면, '지하고 안 맞으면' (아버지 4) 부모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5의 아버지의 경우도 부부라면 서로 안 맞아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딸의 경우는 금전적 문제가 얽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딸이 이혼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게... 뭐 이혼이야 지가 이혼한다고 하니까는... 지하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죠 뭐. 그래 갖고 이혼을 해갖고서 집사람이 그래요. 애가 이혼을 했는데 딸(손녀)을 키우는데 직장 다니고 하니까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별 반대 감정은 전혀 없었고요, 뭐 그냥 받아들였죠. 그래 갖고 들어와서 살았죠."(아버지 4)

제 생각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부가 서로가 안 맞아도 맞춰가지고 살아야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하는데, 한 사람이 안 맞다 하더라도 이혼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내 성격은 이렇게, 네 성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자, 맞춰 살아야지. 이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우리 큰애가 이혼했지만서도, 이혼할 때는 꼭 해야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략) 어차피 금전 관계 때문에 하니까. 일단 해라. 불 끄고, 해결 하고 난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아버지 4)

2)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딸과 딸의 이혼을 수용하는 부모

자신의 이혼으로 인해 부모에게 갖게 되는 죄송스러움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혼한 딸의 경우 자신의 이혼을 어

쩔 수 없는 삶의 선택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배경에는 ‘힘든 전 배우자의 성격’, ‘의존적이고 부정적인 전 배우자의 마인드’, ‘차압’ 등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겪었던 힘든 결혼생활이 전제되어 있었다.

1년 연애하고 만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딱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피폐해졌거든요, 몸이. 정신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너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딸 1)

저도 솔직히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누난지 엄만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혼을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이거는 짝수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전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사람이 물든다고 하잖아요. 긍정적인 사람 옆에 가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데, 항상 부정적인 시각에 생각을 가지고 사람 옆에 있으니까,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마인드로 변질이 되더라고요. (딸 2)

한편, 아버지나 어머니 역시 이러한 딸의 힘든 결혼생활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이혼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과는 무관하게 딸의 이혼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러한 딸 이혼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이혼을 생각하는 딸이 이혼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었다.

은연중에는 애길 했고, 그래도 내심 “잘 살았으면 좋겠지”라고 생각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결정을 해서 헤어지겠다고 결정을 딱 했을 때는 “그래 잘 결정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중략) 만약에 부모님이 “너 이혼은 절대 안 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미 여기(친정)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받아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딸 1)

처음에 거의 이제 이혼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죠). 왜냐면 그 사위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러셨는데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걸 알고 마음을

정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딸 5)

이혼을 그냥, 살면서도 계속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자꾸 하기에 그렇게 힘들 거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해지더라고요.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고, 속 썩고 살 필요가 없다. 굳이 뭐 옛날처럼 그 집안에 귀신이 되어도 그 집에서 죽어야 되니, 옛날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래 네가 그렇다면 네가 판단을 그렇게 했다면 어쩔 수 없다. (어머니 2)

그리고 이러한 딸의 이혼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 태도는 결국 다른 자녀와는 달리 이혼한 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상승작용을 하면서 이혼한 딸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연결되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는 ‘(다른 자녀들은) 지 남편 있고, 가정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이혼한 딸은) 저렇게 혼자 돼가지고 오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라는 어머니 1의 진술처럼 딸의 이혼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른 자녀와는 달리 이혼해서 혼자된 딸에게는 뭐라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렇게 혼자 돼가지고 오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이혼한 딸에게) 해줘야 될 것 같고, 혼자 있다는 게 안쓰러운 생각이 있어요. (중략) 그래도 앞 날 생각해보면은 애가 혼자(라서) 안 쓰럽고, 혼자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하면은 이걸 어떡해! 혼자 외롭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옆에 (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중략) 우리 막내가 혼자니까 안쓰러운 것뿐이지. 다른 애들은 안쓰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1)

3)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혼 사실

이혼한 딸도 본인의 이혼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부모 역시 안타깝지만 딸의 이혼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대부분의 이혼 당사자인 딸과 부모는 본인이나 딸의 이혼 사실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타인이 이혼 당사자나 딸의 이혼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보이면서 이혼 사실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혼 사실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배경에는 당사자보다 부모의 자존심이 더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한

국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의 이혼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 얘기를 못 꺼냈고, 좀 창피해서. 상황이 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이혼을 좀 했다는게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이혼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웬만하면 서로 이해하고 맞춰서 살면 되지 이혼한 거 보면 성격이 모가 난 점이 있으니까 안 맞아서 틀어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굳이 이혼했던 얘기를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딸 2)

누가 알까 창피하고, 자존심에 쉬쉬하고, 누가 알까 두렵고, 막 그랬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체념이 됐는데, 내가 아직 오픈을 아직 안 했어. 어떻게 생각하면 오픈 해가지고 좋은 사람도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여기 (에서) 안 나와. 우리 딸 이렇게 돌싱돼서 왔고. 내 자존심 (때문에). (이혼은) 실패죠.. 잘 살아야지, 가정 못 지키고 이렇게 깨진다는 건 실패죠. (어머니 1)

한국에서 이혼했다고 하면 등허리에 딱지 붙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죄인같이 어디 가서 얼굴을 못하고 살잖아요. (중략) 제가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집에 살아도 정말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친척이나 알지 진짜 그냥 아는 지인들한테는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딸이 이려고 있지만, 남한테 드러내놓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니 3)

연구 참여자 중 사례 5 딸은 “엄마가 (자신의 이혼 사실을) 먼저 말해요 막. [웃음] 계속 말해, 같은 얘기(를). 그리고 또 (어머니가) 긍정 마인드라 그런지 “이혼이 흠이냐” 이러면서 [웃음]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라고 진술하면서 어머니가 자신의 이혼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어머니도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하는 친구한테는 딸의 이혼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엄마가 먼저 말해요 막. [웃음] 계속 말해. 같은 얘기(를). 그리고 또 긍정마인드라 그런지 “이혼이 흠이냐?” 이러면서 [웃음]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잘 모르거나 비밀로 하는 사람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같이 있다는 거를 비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고. 아니 이혼해서 굳이 여길 또 들어와서 산다는 게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나? 아주 뭐 자존심을 좀 세우고 싶은 친구한테는 말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딸 5)

2. 이혼한 딸과 부모의 동거 경험

1) 힘든 결혼생활 이후 자연스러운 동거와 결혼 전과는 다른 약간은 불편한 동거

주거의 독립이 성인의 전제 조건이 아니며,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 전까지는 부모와 동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는 한국 가족의 특성(M. Sung, et al., 2017)이 자녀 없이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후 동거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자녀 없이 이혼한 경우에는 결혼을 통해 딸이라는 하위체계가 전체 가족체계에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결혼이 종료된 이혼 이후에는 다시 이전 체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편안함과는 상관없이 두 세대 모두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딸의 입장에서는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는 것을 ‘죄송스럽기는 하나 당연한 것’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이혼한 딸이 다시 가족으로 들어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독립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다시 집으로 가는 게... 본가로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혼자 나와 가지고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다시 부모님한테 가는 걸로 생각을 했지. 그래서 독립을 또 해본 적도 없고, 저도 독립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딸 1)

자연스럽게 이혼이 이렇게 되고, 인제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인제 엄마랑 같이 살아야지. 당연하게 생각했지. 이혼했으니까 따로 나가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전혀 안했어요. (딸 2)

다른 연구 참여자와는 달리 사례 3 딸의 경우는 이혼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투사하며,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와 동거하는 삶은 상황 때문에 이루어진 생활양식이지 본인이 좋아서 선택한 생활양식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이

혼 후의 어머니와의 동거는 결혼 전의 어머니와의 동거와는 다른, 불편한 생활양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엄마가 훨씬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점이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가족이기 때문에... 하우스 메이트는 내 사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잖아요. 공간적인 어떤 제약이지! 가족은 같은 공간에 있어서 불편한 거보다는, 심정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내 사생활을 좀 약간 왜 이걸 이렇게 안 했나 저걸 저렇게 안했나 라는 지적을 받을 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조금 약간 구속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싫고.. 약간 그런 불편한 점에. (중략)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 때하고 느낌이 되게 달라요. 다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고 있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사는 거지, 이게 너무 엄마가 너무 좋아서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간다 이걸 절대 아니에요. (딸 3)

그리고 이혼한 딸과 부모의 약간 불편한 동거는 자녀가 있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서 더 명확히 드러났다. 자녀가 있는 이혼한 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연구 참여자와는 달리, 이미 결혼을 통해 자신의 딸과 모-자녀라는 하위체계를 생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가족 체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 부모와의 동거가 편한 측면은 있지만,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나 공간적인 제약 등은 현실적으로 불편하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양육 등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혼 후에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자녀가 없는 경우처럼 결혼 전과 전혀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는 아니었다. 특히 자녀의 존재는 부모와의 동거를 결정할 때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자녀 때문에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녀 돌봄은 직장 생활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자녀의 존재가 동거를 조장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례 5 딸의 경우에는 지금은 자녀양육 때문에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만, 자녀가 혼자 등학교를 할 수 있을 때에는 부모 집으로부터 분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애기가 있었고. 애기를 양육을 제가 해야 됐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 혼자서 힘드니까 들어와서. 근데 자녀가 생기면서 제가 쫓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애기를. 혼자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직장 다니면서 좀 부담

스러워가지고 부모님한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봐 달라고 같이 하면서 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같이, 좀 들어가게 됐죠. (딸 4)

언젠가는 분가를 해야... 아이가 혼자 등하원 할 수 있고 정신 차릴 정도 되면 분가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은 들어요. 지금 아파트를 사왔어요. 그거를 애도 이제 제가 들어서 같이 방을 쓰니까 자기 방을 좀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가해서 정말 예쁘게 꾸며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이제 사춘기도 올 텐데 혼자 살고 싶지 않을까요, 애도? 혼자 자기만의 방. (딸 5)

한편, 이혼한 딸과 동거하면서 지내는 삶의 질에는 부모의 경제력과 돈독한 부모-딸 간의 관계의 역사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부모의 경제력은 이혼한 딸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작용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부모에게도 자신의 경제력은 이혼하고 혼자된 딸에 대한 안쓰러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돈독했던 부모와 딸 관계는 부모로 하여금 딸이 이혼을 해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혼 후 딸과 다시 함께 살게 된 상황은 좋다고 인식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딸에게도 이러한 친밀한 부모-딸 관계는 이혼 후 부모와의 동거를 불편하게 인식하지 않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잘 해주시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지 좀 결혼 전부터도 엄마한테 좀 많이 의존적이었거든요. 다 해주니까. 아 내가 결혼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내 삶을, 내 생활을 내가 이렇게 꾸려갈 수 있을까? 약간 걱정될 정도로 많이 뒷받침을 해주시는 편이었기 때문에 다시 부모님한테 돌아가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중략) 그렇게 고민해서 부모님한테 뭐 여건이 안돼서 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당연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부모님한테 가는 게. (중략) 만약에 부모님이랑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 때부터 돈독함이 부족하거나 불화가 좀 있었다거나 괴리감이 있었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었으면 아마 독립했겠죠... 그런 게 아니라(서). (딸 1)

그래도 앞 날 생각해 보면은. 애가 혼자(라서) 안쓰럽고. 혼자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하면

은, 이걸 어떡해! 혼자 외롭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옆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어머니 1)

그러나 이들의 동거는 일방적으로 딸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딸이 자립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부모의 그늘에 묻어려는 의도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딸 입장에서 본인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기 보다는 부모의 뜻에 맞추는 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물론 자립을 해서, 자신이 자기 일을 개척해나가야 될 텐데. 요새 애들은 의지력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의타심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많이 약하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옛날 같으면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고,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서피 하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은 좀 많이 의지를 하려고 하고. 쉽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그런 모습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게 살려고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 엄마 그늘에서 지는 그냥 물어 갈라고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어머니 2)

조금 더 제 주장을 더 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제가 부모님한테 들어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맞춰드리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만약에 반대로 부모님이 연로해서서 제가 모시는 상황이 됐으면 조금 더 제 주장을 할 거 같아요. (딸 4)

2)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동거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딸이 이혼 후 다시 부모와 동거하게 된 삶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생활양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 입장에서 딸이 독립해서 나가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삶이 딸에게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딸이 결혼 후 나가면서 허전했던 집이 채워져서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하는 등 자신들의 빈둥지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활양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요즘 다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도 그게 도움이 되고, 저축도 되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나가서 (사는 것이) 나는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1)

사실 나는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현재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한 백프로 정도는 됩니다. 저는 이상하게 혼자, 조용한 걸 아주 그냥 또 싫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눈에 보여야 되는, 보여야 마음이 편하고, (빈 집이) 너무 허전하고. 너무 허전한 게 그냥 이제 세상 다 살았나 (싶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같이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같은 울타리에서 살아야 한다는 하나, 욕심 밖에 없어요. (아버지 4)

딸 역시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례 3 딸을 제외하고는, 결혼 전부터 부모와 사이가 좋았고 큰 갈등 없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혼 후 부모와의 동거가 불편함보다 본인도 연로한 부모를 일상적으로 볼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동거 상황을 부모님도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 오히려 엄마아빠 나이 들어가시니까 제가 있으면 좀 든든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만약에 부모님이랑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 때부터 돈독함이 부족하거나 불화가 좀 있었거나, 괴리감이 있었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었으면 아마 독립 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좀 유대감이 좋고, 어머니랑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불편함이 없나 봐요. 지금 왜 사이가 안 좋은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웬지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옛날에 제가 결혼해서 나가있을 때 괜히 너무 짠한 거예요. 엄마 아빠 심심할 것 같고. (중략) 분가해서 있을 때도 되게 마음이 쓰인 적이 많았거든요. 통화하면. 지금도 전화를 자주 하기 때문에 저는 출근해서도 엄마랑 전화를 몇 번씩 해요. 지금은 눈으로 부모님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떨어져있을 때는 불편 했어요. (딸 1)

또한 딸의 경우, 어머니는 가사노동을, 본인은 취업자 역할을 담당하는 등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사례 2 딸의 경우, 결혼생활 자

체를 ‘일장춘몽’으로 진술하면서 완벽하게 결혼 전 딸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어머니 역시 딸의 동거로 인해 가사 일이 많아지는 것을, 부담이 아닌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있었다.

엄마가 아침 되면 “밥 먹어라.”하고 밥 차려주고. 그게 되게 좋은 거 같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살아왔다보니까. 그냥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제 마음이 더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계속 이렇게 살았던 느낌? ○○에(남편과 살던 곳) 살았던 거는 말 그대로 일장춘몽이었나 이런 느낌. 꿈꾸고 일어난 느낌. 진짜 그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딸 2)

아무래도 이제 딸이 들어오니까 할 일도 더 많아지고, 챙겨주고 하다 보면은 그러겠죠.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좀 무료하고, 외롭고 그러잖아요. 혼자 있다 보면은. 근데 딸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좀 더 활력이 생기는 것 같고, 내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대화도 더 되고. 그러는 거 같애. 딸로 인해서 그래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난 더 오히려 활력이 생기고 좋던데요? (중략) 정신적으로도 괜찮은 거 같애요. 노인 둘 외롭게 쓸쓸하니. 딸이 옆에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말 한마디라도 대화 나누고 하는 것이 더 활력이 생기는 거죠 변화된 건 없는데.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은. (어머니 1)

이처럼 지금 현재 부모와의 동거가 두 세대 모두에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투사하는 경우나(딸 3),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집을 꾸미고 싶어 하는 딸의 경우(딸 4, 5)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동거하는 지금 현재의 생활양식을 지속하고 싶어 하였다. 사례 2 딸의 경우, “계속 그냥 이대로 가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혼한 딸이 부모의 집에 들어오면서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후에는 자신이 노부모를 부양할 것을 예측하면서, 현재의 동거를 호혜성을 갖는 생활양식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은 제가 편한 것도 있지만, 지금 점점 (생각이) 드는 게 나는 결혼 꼭 안 해서 나중에 엄

마아빠 편찮으셔도 끝까지 모셔야지. (딸 1)

이혼 후 부모에게 의존하는 부모와의 동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상호 호혜적일 수 있다고 딸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거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이혼 후 이루어진 부모와의 동거는 자신들 내부 메커니즘이나 상호작용과는 무관하게 “부모님 덕 보면서 편안하게 집에서 지낸다”(딸 4)고 보는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하면서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님 덕 보면서 편안하게 집에서 지낸다(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자기가 능력이 되고, 어느 정도의 그게 된다면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있냐 나가서 당당하게 혼자 살지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경향이 많은 거 같아요. (딸 4)

3) 걱정되는 이혼한 딸의 노후와 부모의 지원

이혼한 딸뿐만 아니라 부모도 현재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딸의 노후였다. 그리고 이혼한 딸의 노후에 대한 걱정은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는 부모의 경제력과 상승작용을 하면서, 다른 자녀와는 별도로 이혼한 딸에게 가산되는 방식으로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아픈 데가 생기고. 또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못해서. 조금 뭔가 그런 게 있어서 내 목표가 안 되고 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까 봐 그런 게 조금 걱정이 있죠. (딸 4)

저희는 뭐 그런대로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이제 제(외)하고 (나면), 여윌돈으로 (는) 걱정스러워요. 요즘 직장이라는 게 영원한 직장이 없잖아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걱정이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자식보다도 애한테 신경이 더 쓰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으니까 걱정이 덜 되는데, 다음이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죽는다면지 그러면 혼자 남겨두고 어떻게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중략) 재 앞으로 조그만 거 아파트 사놓고 상가 하나 사는 거 월세 나오는

걸로 그거 이제 좀 (준비해 놓고) 비밀로 한 거죠. (어머니 1)

제가 힘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해주고 싶죠 뭐.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못 해주겠지만, 경제력이 된다 그러면 있는 거 다 주지 내가 누구를 주겠어요. (어머니 2)

그리고 이러한 동거 상황에서의 부모의 경제력과 실제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이혼한 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부모의 경제력과 실제적인 지원은 이혼한 딸에게 현재는 각박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노후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역력은 없는 상황에서, 딸이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었다.

제가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모으는 대로 다 모으고 있잖아요. 버는 대로... 씹씹이가 생활비에 들어가고 있지 않잖아요. 만약 독립을 하게 되면 그 생활비를 제가 다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제 노후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설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뒷전 같은 느낌... 그래도 부모님이라는 큰 버팀목이 있다보니까... 제가 생활비에 대해서 돈 나가는 개념이 제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내가 체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물가... 이런 시국에 제가 혼자 독립해서 이 돈, 저 돈 다 쓰면서 살다 보면 저도 노후걱정이 덜컥 들 것 같아요 (중략) 각박하게 생각할거고... 그런 점이 많이 차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부모님 의존하고 있는 거와 제가 독립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딸 1)

3. 이혼한 후 동거하고 있는 딸과 부모의 관계 경험

1) 성인이기 보다 여전히 아이인 딸과 의지가 되는 성인 딸

성인은 “지 앞길 개척해서 나가보고, 씹씹하게 혼자 살아갈 수 있으면 성인이다 볼 수 있죠. 앞가림 할 수 있는 게, 부모한테 의지 안 하고. 그게 성인이죠.” 라는 사례 1의 어머니 진술처럼,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앞가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성인의 삶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성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

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혼 후 부모와 동거를 하면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패턴으로 봤을 때는 ‘성인이 아닌 애’라고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이혼 딸과의 관계는 동등한 ‘성인 대 성인의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부모 대 품안의 아이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사실 결혼했을 때 내가 성인이거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독립한 느낌. 제가 자체적으로 뭔가 다 해야 된다는 상황이 딱 처음 맞닥뜨리다 보니까 결혼해야지 어른이라더니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애 마냥 다 해주는 거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나이는 많았어도 제가 철든 성인이라고까지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고. 정말 그냥 품 안의 자식처럼 살았던 거죠. 결혼(하고) 보니까 딴 삶이 더라고요. 그때 결혼해보니까 성인이거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애라고 생각은 안 하죠. 제가 나이가 많은데... 니가 성인이지 성인이 아니니?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제 생활패턴은 성인이 아니네요. 생활패턴은 애예요 그냥. (딸 1)

특히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사례 2의 딸은 결혼 전에도 어머니는 자신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머니로부터 분화되지 않은 딸의 상태는 결혼 상황에서도 지속되었다. 결국 이러한 어머니와 딸 관계는 현재에도 변함없이 어머니가 ‘든든한 빛과 같은 존재’로 딸의 의지처가 되는 밀착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저한테는 진짜 하나님 같은 존재?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정말 의지의 대상. 제가 편모가정에서 자라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있어서 그랬던지 몰라도. 일단은 남편이라 해도 이혼하면 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제 마음 언저리에는 항상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가족이라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애랑도 어차피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사이인데.” 이런 생각이 부정 탄 건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엄마를 선택할거야. 만약에 진짜” 이런 상상을, 제가

좀 독특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구해야 된다 하면 누굴 선택할래 너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난 엄마를 선택할거야.” 이런 생각을 했죠. (중략) 현재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산 같은 존재? 진짜로 막 너무 든든한. 그냥 제 마음의 진짜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없으면 못 살 거 같은. (딸 2)

부모 역시 딸이 “결혼하기 전보다 지금 더 책임감이 있다고 보고 있”는 사례 4 아버지의 진술처럼, 결혼을 딸이 성인으로 변화된 한 시점으로 보고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딸의 이혼으로 인해 결혼하기 전처럼 동거하게 되면서 딸을 성인으로 보기 보다는 여전히 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4의 딸 역시 자신을 여전히 애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인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고스란히 본인에게도 내면화되어 있었다.

맨날 보면 결혼하기 전에 보던 걸 지금까지 보니까 그냥 아직까지 성인이라고 생각이 안 들죠. 잘 살고 있었다면 아 지금쯤 사람(성인)이 되어가나? 아직까지 얘기 같죠. (아버지 4)

아직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웃음] 아버님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세요. 아직도 얘기가 생각하시고 못 미더워 하시고[웃음] 조금 불안해하세요. (중략) 저는 지금 한치 앞도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른은 아닌 것 같고. (딸 4)

반면, 사례 5의 딸 경우에는 비록 이혼을 하였지만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품안의 자식이 아닌 성인으로 인정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4처럼 결혼과 출산, 이혼이라는 동일한 생애 사건을 경험한 사례 5 딸의 부모-자녀관계가 다른 것은, 딸을 성인으로 보고 ‘그냥 너 인생 너 꺼다’라고 보는 아버지의 인식과, 부모를 자신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둔 사실 등 성인인 딸에게 부모가 의지하는 방향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전환된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제 품 안의 자식은 아닌, 뭐 이런 이제 떠난. 이제 저도 성인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중략) (아버지는) ‘그냥 너 인생 너 꺼다.’ 뭐 이런 (입장이시고). 엄

마 아빠는 제가 그 보험(을 든 것이). 엄마 아빠가 계속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신뢰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혼을 한번 해서 그런지 (제가) 늦게 (집에) 가도 별말 안하더라고요. 행복하게. [웃음] 이제 뇌켰더라고요. 저를 의지하는 것 같긴 해요. (딸 5)

2) 피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와 밀착과 애증이 함께 하는 어머니와의 관계

결혼 전에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례 1 딸의 경우에도 현재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딸 간 대화의 연결고리가 되는 등 아버지와는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버지 역시 성인 딸과는 일상생활에서의 관심사가 달라지면서 사례 4의 아버지의 진술처럼, ‘(이혼한 딸과는) 상충되는 무슨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충돌이나 ‘갈등 같은 거는 없’는 피상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딸과의 피상적인 관계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아빠랑도 많이 친밀했는데, 점점 나이 드니까, 점점 약간 멀어진다고보다 약간 서로 다정다감하게 하는 건 없어졌어요. 어렸을 때,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 가기 전에 아빠랑 뽀뽀하고 가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친밀하고, 아빠 손발뚱 맨날 다 껴주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귀찮은 거예요.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아빠 염색해주는 것도 귀찮아서 엄마가 해주시고. 옛날 같았으면 내가 다 해주고 이랬을텐데. 그런 다정다감함이 제가 덜한 것 같아요. (중략) 옛날에는 제가 막 내딸이라서 아빠랑 더 친밀하고 이런 게 있었다면, 아빠한테 죄송하지만 지금은 엄마 쪽으로 치우친 느낌. 결혼하고 나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혼 후) 약간 좀 멀어진 느낌? 그런 건 좀 있어요. 제가 막 집에 힘들다고 와 있으면 그런 걸 좀 싫어하셨거든요. 아빠는 (무슨 일인지) 정말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이야기를) 엄마를 통해서만 듣는 거예요. 제가 아빠한테 바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만 얘기하고. (딸 1)

딸하고 저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갈등 같은 거는 없고... (아버지 4)

반면,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딸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결혼 및 이혼 등 부정적 생애 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투사하는 사례 3을 제외하고는, 이혼 후 더 친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례 2 딸은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이혼 이후 지나치게 어머니에게 밀착, 의지하면서 오히려 어머니가 딸과의 관계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엄마 엄마, 내가 솔직히 요만큼도 거짓말 안 보태서 나는 엄마랑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좋대! 스트레스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소리를 혼자 지르고 그래도 꿈쩍도 안하고 그런 적이 많았다면서 나는 엄마랑 사는 게 너무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데로 잘하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내 친구 부르고 싶어도 너 눈치 보느라 못한다' 속으로는 그러지. 그게 좀 불편해요. (어머니 2)

사례 3의 모녀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결혼 및 이혼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리는 딸로 인해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결혼 전에도 각별한 모녀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혼으로 인해 인생이 꼬인 것을 어머니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딸로 인해 모녀관계가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 사례 3의 어머니는 현재의 모녀관계를 '옛 어른들 말이 품 안에 자식이지, 나이 들면 자식도 자식 같지 않다고 정스럽지 않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내가 참 실망도 많이 해요'라는 진술처럼, 딸과의 관계를 힘들고 실망스런 관계로 인식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반면, 사례 3의 딸은 외로운 어머니가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을,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면서 극도로 부담을 느끼면서 옆에 있음으로써 해서 '내 발목을 엄마가 잡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학 가고 또 맨날 아프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엄마가 되가지고 참 나쁜 생각 같지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면요 어찌다 막... 딸인데도 애정이랄까요? 이런 게 안 느껴질 때가 있다가요. 너무 엄마를 힘들게 하면 그래서 이게 인간이구나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자식이라도, 자식같이 안보일 때가 있어요 (중략) 그 옛 어른들 말이 품 안에 자식이지 저기 어른, 나이 들면 자식도 자식 같지 않다고 정스럽지 않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중략) 내가 참 실망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말 한번도 누구한테 해보지

못하지 내 친동생 여동생들한테나 하지, 나 어디 가서 말 못하지. 친구한테 말하겠어요? 누구한테 말 못하지. (중략) 어떻게 생각하면 외롭지 내가 많이. 그래서 그 외롭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래, 인생은 어차피 혼자 나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혼자 간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크게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내가 내 본인한테 주문을 해요. 그래 조금 외롭더라도 십원이 외롭다 그러면 십원같이 외롭다 그러면 나는 오원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자 그렇게 내가 내한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3)

그냥 인생이 좀 이렇게 많이 꼬인 게 웬지 엄마 탓인 것만 같고 그 당시에 좀 그랬던 거 같아요 (중략) 막 너무 살갑거나 사실은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데면데면한 상태라고 해야 될까? 그냥 아마 제 개인적인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글썄요 별로 그렇게 솔직히 정말 나눌 대화가 많지가 않아요. 정말 뭐... 엄마... 엄마의, 글썄요. (중략)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엄마하고 막 대화를 많이 하거나 아빠랑 그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 좀 그래도 따뜻한 어떤 그런 마음은 제가 느껴졌는데 엄마랑은 좀 별로 그렇게 큰 그런 게 없었어요. (중략) 내가 뭐 내가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나한테 너무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냥 이야기했는데 기분 나빠하셨을 지도 몰라요. 아 근데 정말 조금 힘들었어요 (중략) 굉장히 저한테 의지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심정적으로 굉장히 의지를 하는 거 같아요 외롭다고... 딸이 옆에 있음으로써 내 발목을 엄마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나한테 그런 부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딸 3)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딸과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시각과 목소리를 통해 딸의 이혼과 동거에 대한 의미와 이혼한 딸과 부모 간의 관계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혼 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이혼한 딸 5명

과 이혼한 딸과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 3명, 아버지 2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은 주제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도출된 큰 주제는 '동거하는 딸의 이혼에 대한 인식'과 '이혼한 딸과 부모의 동거 경험', 그리고 '이혼한 후 동거하고 있는 딸과 부모의 관계 경험'이었다. 이러한 큰 주제 하에서 나타난 세부 주제는 딸의 이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이혼이 죄스러운 딸과 딸의 이혼이 안타까운 부모',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딸과 딸의 이혼을 수용하는 부모',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혼 사실'이 드러났다. 이혼한 딸과 부모의 동거 경험에 있어서는 '힘든 결혼생활 이후 자연스러운 동거와 결혼 전과는 다른 약간은 불편한 동거',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동거', '걱정되는 이혼한 딸의 노후와 부모의 지원'이 도출되었다. 같이 사는 이혼한 딸과 부모 간의 관계 특성 주제 하의 세부 주제로는 '성인이기보다 여전히 아이인 딸과 의지가 되는 성인 딸' 이 드러났고, 이혼한 딸과 아버지 쌍과 어머니 쌍의 면접을 통해 독특하게 도출된 주제는 '피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와 밀착과 애증이 함께 하는 어머니와의 관계' 등이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한 딸과 부모는 이혼이 삶에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행복한 삶을 위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전히 이혼을 인생의 실패라는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딸은 자신의 이혼에 대해 부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며, 부모는 딸의 이혼을 딸 개인의 생애 사건이 아니라 가족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보면서 안타깝게 인식한다. 그러나 딸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차이는 있었다. 어머니의 경우 이혼한 딸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딸의 이혼을 본인에게 가하는 고통이나 충격, 아픔으로 인식하면서 죄의식을 느낀다. 반면, 아버지는 제 3자적 관점에서 딸의 이혼을 인식하거나 본인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면 부모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이혼한 딸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 및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결혼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이혼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식한다. 부모 역시 이러한 딸의 어려운 결혼생활을 이혼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의 이혼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딸의 이혼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안쓰러움과 상승작용하면서 이혼한 딸에 대한 전폭적 지원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딸과 부모의 이혼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와는 무관하게, 이혼에 대한 부정

적 낙인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혼 사실 자체를 창피한 일로 인식하면서 타인이 이혼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고, 자녀의 실패는 곧 부모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미분화된 부모-자녀 관계 맥락(S. Lee et al., 2012; Y. Park & U. Kim, 2004)이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는 딸과 그들의 부모에게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생애과정관점의 대표적인 학자인 G. Elder(1985)가 말한 것처럼,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이혼한 딸의 이혼이라는 생애 사건은 딸이 경험한 생애 사건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부모와 자녀의 삶이 한 데 묶여 있는 '연결된 삶'이기 때문에, 자녀 세대의 이혼은 부모 세대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자녀들보다 이혼한 딸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자녀로 인식하면서 조건적합이론(contingency theory)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모들은 동거하고 있는 이혼 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K. Fingerman et al., 2009). 즉 이혼한 딸에게 부모는 그야말로 유일하면서도 든든한 심리적, 물질적 안전망이 되고 있었다.

둘째, 자녀 없이 이혼한 경우에는, 결혼을 통해 딸 또는 본인이라는 하위체계가 전체 가족체계에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혼 이후 다시 이전 체계로 되돌아가는 두 세대의 동거를, 이혼한 딸이나 부모 모두 당연한 거주 형태로 인식한다. 반면, 다른 연구 참여자와 달리 이혼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투사하며,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나 공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는 상황을 불편하게 인식한다. 그리고 이혼 후 부모와 동거하는 삶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딸의 돈독한 관계의 역사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혼한 딸과 부모 모두 현재의 동거에 대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생활양식으로 생각하며, 현재는 이혼한 딸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생활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후에는 자신이 노부모를 부양할 것을 예측하면서 이혼한 딸의 입장에서 현재의 동거를 장기적인 맥락에서는 호혜성을 갖는 생활양식으로 인식한다. 한편, 이혼한 딸과 부모는 자신이나 딸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부모의 경제력과 상승작용을 하면서 다른 자녀와는 별도로 이혼한 딸에게 가산되는 방식으로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처럼 딸의 이혼이라는 생애 사건이 두 세대의 동거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 여부가 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를 해체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이혼한 딸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미래의 노부모 부양까지 고려한다면 두 세대 모두에게 상호호혜적인 생활양식이라고 이혼한 딸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현재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와의 애정적 유대감은 따로 사는 자녀들보다 오히려 낮다는 연구결과(L. White & S. Rogers, 1997)가 일부만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 있어야 성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이혼한 딸이나 부모에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딸의 인생을 본인과 분리시키며, 부모를 자신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두었던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현재 부모와 동거하면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인이 아닌 아이나 부모 품안에 있는 아이로 딸 또는 본인을 인식한다. 또한 이혼한 딸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머니가 대화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 등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결과로 아버지와 이혼한 딸과의 관계는 어떤 이해관계나 충돌, 갈등도 없는 피상적 관계를 유지한다. 반면, 이혼한 딸과 어머니의 관계는 딸의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 후 더 친밀한 관계가 된다.

이처럼 이혼한 딸과 부모가 동거하는 삶은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혼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딸과 이러한 딸의 이혼을 안타까워하면서 감싸주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이혼의 상처가 치유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부모-성인자녀 관계가 여전히 동등한 성인 대 성인의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부모 슬하의 자식 관계로 자리매김 되고 있기 때문에 딸이 이혼 후 원가족으로 돌아와 동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혼한 딸이 결혼한 딸에 비해 부모와의 애정적 결속이 낮다는 연구결과(N. Sarkisain & N. Gerstel, 2008)와는 상충되는 결과이며, 이혼한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부모와의 교류나 동거, 기능적인 지원 교환을 더 활발히 보인다는 실증연구들(F. Bucx et al., 2008; N. Sarkisian, 2006; N. Sarkisain & N. Gerstel, 2008; T. Swartz, 2009)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한 딸과의 동거는 부모의 경제력을 토대로 이혼한 딸에게 심리적, 경제적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부모-자녀 관계가 좋았던 경우에만 이혼 후에도 다시 동거를 선택하였고, 자녀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부모의 인식이

많이 발견된 것에 미루어 볼 때, 이혼한 딸과 부모의 동거는 이혼한 딸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안전망 제공의 성격이 가장 크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안전망 속에서 어머니와 딸 관계는 친밀하고 밀착된 관계를 보이며, 부녀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피상적 관계가 부녀 간 이해 충돌이나 갈등을 없애는 기제로 작용하여 오히려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도 있다. 이와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른 관계 맺기 방식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혼한 딸의 부모와의 동거를 현 시점에서 조망해 보면, 이혼한 딸의 일방적 의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보면 호혜성이 보여, 이혼한 딸이 부모와의 동거에서 감사와 편안함을 느끼면서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고 싶은 생활양식으로 현재의 삶을 인식하고 있다. 즉 이러한 이혼한 딸의 인식은 이후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이혼한 딸의 부모와의 동거를 통해 이혼에 대한 인식, 동거에 대한 인식,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서 한국 가족의 특성과 노부모-성인자녀 간 상호작용 관계에서 보이는 호혜성을 예측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가족의 특성을 진단하고 트렌드를 예측할 때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REFERENCES

- Ahn, S. Y., Cuervo, H., & Wyn, J. (2010). *Transition from youth to adulthood I : Comprehensive report* (10-34-01).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Amato, P. R., & Booth, A. (1996). A prospective study of divorc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2), 356-365.
- Aquilino, W. (1990). The likelihood of parent-adult child coresidence :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2), 405-419.
- Aquilino, W., & Supple, K. (1991). Parent-child relations and parent's satisfaction with living arrangements when adult children live at ho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1), 13-27.
- Arnett, J. J. (2006).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Barrett, M., & McIntosh, M. (2015). *The Anti-Social*

- Family (Radical Thinkers)*. Verso; Reissue edition.
- Bell, L., Burtless, G., Gornick, J., & Smeeding, T. (2007). Failure to launch: Comparative trends in the transition to economic independence. In Danziger, S. & Rouse, C. E. (eds.). *The price of independence: The economics of early adulthood* (pp. 27-55). New York: Russel Sage.
- Bengtson, V. L., & Roberts, R. E. L. (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856-870.
- Bengtson, V. L., & Schrader, S. S. (1982). Parent-child relations. In Mangen, D. & Peterson, W. (Eds.). *Handbook of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Vol. 2, pp. 115-185).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Bucx, F., Van Wel, F., Knijn, T., & Hagendoorn, L. (2008).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the life course status of young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 144-156.
- Bulcroft, K., & Bulcroft, R. (1991). The timing of divorce: Effects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later life. *Research on Aging*, 13, 226-243.
- Cheong, J.-W. (2013). A study on the divorce system of Korea after chosun dynasty - focusing mainly on the causes of the divorce and gender equality -. *Korean Journal of Family Law*, 27(2), 139-174.
- Cho, E.-H. (2007). Freiheit der scheidung und ihre grenzen - einverst? ndliche scheidung und reform der einverst? ndlichen scheidung -. *Korean Journal of Family Law*, 21(1), 133-164.
- Choi, Y. S. (2014).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adult children cohabiting with their parents and an exploration of the frame of analysi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4), 75-89.
- Chung, H. S. (1993). Post-divorce adjustment : The experience of the school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4(1), 59-75.
- Cooney, T. M. (1994). Young adults' relations with parents: The influence of recent parental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5-56.
- Coser, L. A. (1974). *Greedy institutions: Patterns of undivided commitment*. New York: The Free Press.
- Descartes, L. (2006). Put your money where your love is: Parental aid to adult children.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3, 137-147.
- Elder, G. H., Jr. (1985).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In Elder, G. H. (Ed.).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Fingerman, K., Miller, L., Birditt, K., & Zarit, S. (2009). Giving to the good and the needy: Parental support of grow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5), 1220-1233.
- Gonzales, A. M. (2007). Determinants of parent-child coresidence among older Mexican parents: The salience of cultural values. *Sociological Perspective*, 50(4), 561-577.
- Isengard, B., & Szydlik, M. (2012). Living apart (or) together? coresidence of elderly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in Europe. *Research on Aging*, 34(4), 449-474.
- Joo, H. J. (2016). Decision making on divorce in wome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1, 32-41.
- Ju, S. H. (2008). Cumulative risk and problem behavioral of divorced family's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6, 61-86.
- Kahn, J. R., Goldscheider, F., & García-Manglano, J. (2013). Growing parental economic power in parent-adult child households: Coresidence and financial dependency in the United States, 1960-2010. *Demography*, 50(4), 1449-1475.
- Kang, Y. J. (2016). Relationship quality between unmarried adult children and their coresident par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s*, 27(3), 387-403.
- Kaufman, G., & Uhlenberg, P. (1998). Effects of life course transitions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4), 924-938.
- Kim, K.-H., & Ha, K.-S. (2012). Marital relations of aged people affe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divorce inten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5), 256-271.
- Kim, S. (2014). Precarious life and life mapping strategies in migrant women's experiences of marriage and divor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30(4), 189-231.

- Kins, E., Beyers, W.,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9). Patterns of home leav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merging adulthood: The role of motivational processes and parental autonomy support.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416-1429.
- Lawton, L., Silverstein, M., & Bengtson, V. L. (1994). Affection, social contact, and geographic distance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1), 57-68.
- Lee, H. K. (2004). A review study on the impact of divorce upon children's well-being.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 47-53.
- Lee, S.-W., Shin, H.-K., & Kim, E.-S. (2012). *Korean parents : The story of the sickest people in Korea*. Paju: Literary Village.
- Lee, Y., Kim, S., Lee, Y., & Choi, H. (2011). The influence of self differentiation and coresidence with unmarried adult-child on parent's mental health.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9*(2), 137-145.
- Lee, Y.-B., Lee, Y., Choi, H., & Lee, H. (2011). An explorative study on coresident adult childr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1*(3), 5-30.
- Leopold, T. (2012). The legacy of leaving home: Long-term effects of coresidence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3), 399-412.
- Lim, C. H. (2014). A Study on post-divorce adjustment and new partnership of immigrant single mothe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3*(6), 1049-1069.
- Ma, S., & Wen, F. (2016). Who coresides with parents? An analysis based on sibling comparative advantage. *Demography, 53*(3), 623-647.
- Messineo, M. J., & Wojtkiewicz, R. A. (2004). Coresidence of adult children with parents from 1960 to 1990: Is the propensity to live at home really increasing? *Journal of Family History, 29*(1), 71-83.
- Mitchell, B. A. (1998). Too close for comfort? Parental assessments of "boomerang kid" living arrangements. *The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3*(1), 21-46.
- Mitchell, B. A., & Gee, E. M. (1996). "Boomerang kids" and midlife parental marital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5*(4), 442-448.
- Moon J. H., & Kim, M. R. (2017). Qualitative case study on psychological difficulties found in each divorce decision making stage that senescent women face in their early stage of elderly lif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8*, 67-96.
- Mykyta, L., & Macartney, S. (2012). *Sharing a household: Household composition and economic well-being: 2007-2010*.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Report (pp. 60-242). Retrieved from <https://www.census.gov/library/publications/2012/demo/p60-242.html>.
- Nam, Y.-O. (2010). A comparative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Studies on Korean Youth, 21*(3), 219-243.
- Newman, K. S. (2013). *The accordion family: Boomerang kids, anxious parents, and the private toll of global competition*. Boston: Beacon Press.
- Newman, K., & Aptekar, S. (2006). Sticking around: Delayed departure from the parental nest in Western Europe. *Network on Transition to Adulthood Policy Brief, 28*.
- Noh, C.-S., Ham, K.-A., Kim, M.-K., Kim, H.-G., & Cheon, S.-M. (2014). An analysis on marital maintenance and divorce decision process of married person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1*(1), 97-115.
- Ok, S. H., & Sung, M. (2004). A study of divorce adjustment of divorc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focus on life satisfaction and health-.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11), 167-187.
- Park, H.-J., & Han, G.-H. (2006). Support from the elderly parents and the post-divorce adjustment of adult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6*(2), 361-380.
- Park, Y. S., & Kim, U. C. (2004). *Parent-child relationship of Korean*. Paju: Kyoyookbook.
- Payne, K. K. (2012). *Young adults in the parental home, 1940-2010*. National Center for Family & Marriage Research, 2012. (FP-12-22) Retrieved from <https://www.bgsu.edu/content/dam/BGSU/college-of-arts-and-sciences/NCFMR/documents/FP/FP-12-22.pdf>.
- Pew Research Center. (2009). *Home for the holidays... and every other day*. Washington, DC. Retrieved from <http://pewsocialtrends.org/assets/pdf/home-for-the-holidays.pdf>.
- Qian, Z. (2012). During the great recession, more young adults lived with parents. *Census Brief prepared for Project US2010*, Retrieved from http://www.russellsage.org/sites/all/files/US2010/US2010_Qian_

20120801.pdf

- Raymo, J. M., & Zhou, Y. (2012). Living arrangements and the well-being of single mothers in Japa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1(5), 727-749.
- Raymo, J. M., & Ono, H. (2007). Coresidence with parents, women's economic resources, and the transition to marriage in Japan. *Journal of Family Issues*, 28(5), 653-681.
- Ruggles, S., & Heggeness, M. (2008).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in developing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4(2), 253-281.
- Sarkisian, N. (2006). "Doing family ambivalence": Nuclear and extended families in single mothers' liv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4), 804-811.
- Sarkisian, N., & Gerstel, N. (2008). Till marriage do us part: Adult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2), 360-376.
- Sassler, S., Ciambone, D., & Benway, G. (2008). Are they really mama's boys/daddy's girls? The negotiation of adulthood upon returning to the parental home. *Sociological Forum*, 23(4), 670-698.
- Schwartz, Y., & Ayalon, L. (2015). The experiences of older mothers following the return of an adult child home. *Journal of Aging Studies*, 33, 47-57.
- Seiffge-Krenke, I. (2006). Leaving home or still in the nest?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health as predictors of different leaving home patt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42(5), 864-876.
- Silverstein, M., Cong, Z., & Li, S. (2006).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eople in rural China: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 Social Sciences*, 61B(5), S256-S266.
- Smits, A., Van Gaalen, R. I., & Mulder, C. H. (2010). Parent-child coresidence: Who moves in with whom and for whose nee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4), 1022-1033.
- Son, S.-H. (2013). Single mothers' experiences of achieving independence after divor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2), 59-75.
- South, S. J., & Lei, L. (2015). Failures-to-launch and boomerang kids: Contemporary determinants of leaving and returning to the parental home. *Social Forces*, 94(2), 863-890.
- Statistics Korea. (2017a). Results of marriage and divorce statistics in 2017. Retrieved from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673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Statistics Korea. (2017b). Social Indicators in 2016.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59630&ord=3.
- Steketee, M. (2011). Describing parent-adult child coresidence. *Michigan Sociological Review*, 25(Fall 2011), 70-111.
- Suitor, J. J., & Pillemer, K. (1988). Explain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live togeth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4), 1037-1047.
- Suitor, J., & Pillemer, K. (1988). Explain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live togeth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 1037-1047.
- Sung, J.-H., & Yang, S.-Y. (2006). A critical review of institutionalization of careful deliberation period for divorce. *Family and Culture*, 18(2), 139-163.
- Sung, M., Choi, Y., Choi, S., & Lee, J. (2017). Elderly parents-unmarried adult children relationships : Group differences by co-residency and economic dependency of adult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5(1), 139-158.
- Sung, M., Lee, J., Choi, Y., & Choi, S. (2017). Co-residence of older single mothers and ever-single daughters : Borderline between overdependence and mutual dependen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5(3), 81-98.
- Swartz, T. T. (2009).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 in adulthood: Patterns, variations, and implications in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1), 191-212.
- Turcotte, M. (2006). Parent with adult children living at home. *Canadian Social Trends*, 11, 2-10.
- Umberson, D. (1992).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both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664-674.
- Umberson, D., & Gove, W. (1989).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y, measurement, and stage in the family life course.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440-462.

- van der Pers, M., Mulder, C. H., & Steverink, N. (2015). Geographic proximity of adult children and the well-being of older persons. *Research on Aging*, 37(5), 524-551.
- Vassallo, S., Smart, D., & Price-Robertson, R. (2009). The roles that parents play in the lives of their young adult children. *Family Matters*, 82, 8-14.
- Ward, R., & Spitze, G. (2007). Nestleaving and coresidence by young adult children: The role of family relations. *Research on Aging*, 29(3), 257-277.
- White, L. K., & Rogers, S. J. (1997). Strong support but uneasy relationships: Coresidence and adult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1), 62-76.
- White, N. R. (2002). "Not under my roof!" young people's experience of home. *Youth & Society*, 34(2), 214-231.
- Yi, S.-H., Lee, O.-K., & Kim, J.-H. (2005). Predicting internalizing problems of Korean children of divorce: The role of self-efficacy, peer attachment, parent-child communi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1), 99-111.
- Yun, K.-I., & Sung, M. (2016).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singl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cross developmental stages and implications for elderly polic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5(1), 1-16.

- Received: March 15. 2018
- Revised: May 21. 2018
- Accepted: June 15. 2018